

서용 서암스님 선필전...覺·氣·空 3인전...새천년 전통불화전...

부처님 오신뜻 기리는 문화행사 '야단법석'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시와 공연 등 각종 문화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가족과 함께 가까운 전시장을 찾아 불교문화의 향취를 느껴보자.

전 조계종 종정인 '서용 서암스님 선필전'이 9일~6월 8일까지 서울 서대문구 법원사 불일미술관에서 열린다. 한국불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선객으로 불자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서용스님(백양사 방장)과 서암스님(전 조계종 종정)이 직접 그린 선사화 40여점이 최초로 일반에 공개된다.(02-733-5322)

불자화가 이창규 이강원 김부견씨는 10일~16일까지 전주 서안길거리에서 '覺·氣·空 3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이창규 화백은 각(覺)이라는 주제를 하늘과 땅이 나와 더불어 한 뿌리이고, 온 누리는 나와 더불어 한 몸임을 표현해 내고 있다. 이강원 화백은 기(氣)를 작품의 테마로 구도인의 모습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본성을 찾아, 그에 따른 기의 세계를 이미지화하여 작품속에 담아 냈다. 공(空)을 그림의 주제로 삼은 김부견 화백은 불날 곳곳에 활짝 핀 꽃들에서 부처의 모습을 읽어내고, 부처가 부처 아님을 그림으로 보여준다.(0652-255-1653)

한국불교연구원은 11일까지 롯데백화점 본점 롯데화랑에서 전법수행도량 유마정사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불교미술전시회'를 연다. 한국불교미술협회와 함께 준비한 이번 전시에는 '석가삼존 16나한도' '지장보살도' '만다라' 등과 '동심' '길없는 길' 등 조각작품 등 60여점이 선보인다.(02-3411-6167)

만하불화박물관 건립기금 모금을 위한 '새천년 전통불화전'은 11일까지 대전 갈매리아 타임월드 10층에서 열린다. 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후보 박정자씨의 작품이 전시된다.(0613-333-44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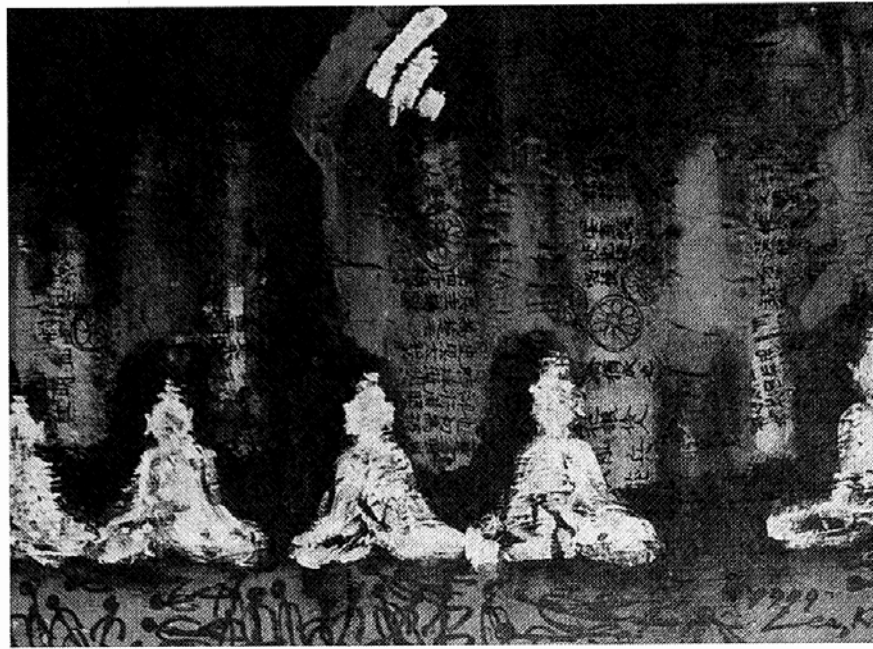
시인이자 서예가인 '외길 김경호 사경전'은 14일까지 동국대학교 문화관 갤러리 동국에서 열린다. (화엄경 약찬제) (반야심경) 등 사경작품 30여점이 전시된다.(02-2260-8752)

조계종 불족위원회는 11일까지 서울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전통 불화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에는 용등, 봉황등, 호랑이등, 수박등, 거북등, 잉어등, 복등, 누각등, 향아리등 등이 선보인다.(02-725-66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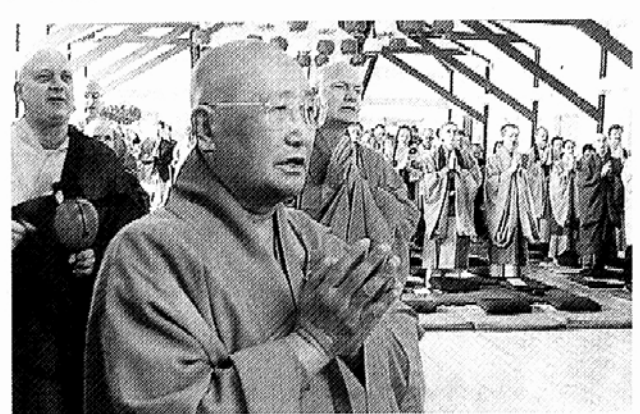
제18회 한국의 명무명인전이 16일~17일 오후 7시30분 호암아트홀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연에는 인간문화재 김천홍씨의 춘영전, 하와이 불은사 주지 자은스님의 번뇌, 서울예술대학 오은희 교수의 승무를 비롯 살풀이춤, 춘영전, 도살풀이춤, 진도걸북춤, 태평무 등을 선보인다.(02-585-7318)

이밖에도 10일 저녁 8시에는 조계사 경내에서 티벳불교영화 '컵(CUP)' 시사회를(02-720-2725), 11일 오후 7시에는 서울 성북동 길상사에서 길상음악회를 연다.(02-3672-5945)

이은자 기자
(ejele@buddhania.com)



▷각(覺)·기(氣)·공(空) 3인전에서 '기'를 테마로 구도인의 세계를 형상화한 이강원씨의 '구도II'.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각 방송사마다 다큐멘터리, 영화, 음악회, 드라마, 대담 등 다양한 불거리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MBC-TV '송산이 동쪽으로 간 까닭은'.

방송 채널마다 봉축프로그램 다채

이번 봉축 특집에는 불교 관련 다큐멘터리가 중심이다. 하지만 작년에 방송됐던 프로그램들이 재편성되는 등 각 방송국들의 봉축 분위기가 예년만 못하다는 게 방송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런 아쉬움 가운데서도 눈길을 끄는 것은 MBC-TV의 '송산이 동쪽으로 간 까닭은(가제)', EBS-TV의 '인도로 간 한국불교', KBS-TV의 '다섯모녀의 출가' 등이다.

11일 MBC-TV에서 방송되는 '송산이 동쪽으로...' (오전9시~10시)는 송산스님(화계사 조실)의 가르침에 감화돼 출가한 외국인 수행자들의 모습을 통해 한국 선불교가 서구에 미친 영향을 되새겨 보는 프로그램. 지난 해 7월부터 기획된 이 프로그램에서는

밀레니엄 축제의 뜰 분위기속에서도 수행 정진에 여념이 없는 미국 보스턴의 '국제 선센터'와 모하비 사막에 불사중인 '태고사'의 모습 등이 생생히 소개된다. 같은날 EBS-TV에서 방영되는 '인도로...' (밤10시~10시40분)는 인도 수자타 지역에서 천민들을 위해 문을 연 '수자타 아카데미'의 학교 생활을 보여준다.

KBS-TV도 '다섯모녀의 출가' (밤12시~12시50분)를 특집 편성했다. 이 프로그램은 울산 청소사로 출가한 어머니 연담스님을 비롯해, 전남 담양사에서 수행 생활을 하며 다섯 모녀들의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는 법정스님 등 다섯모녀의 출가 사연을 조망했다. 김주영 기자

부처님 오신날(11일) 볼만한 방송프로그램

방송사	시간	프로그램	내용
불교방송	14:10	정청 귀조종전	외국의 부처님오신날 풍습을 소개하고 귀조종제를 통해 불교를 소개한다.
	15:05	정착음악극 '전경'	전경선사의 일대기를 원판 소리극화된 불교대담극
	17:10	라디오공영의 불교인문	불교인문 등의 연주소를 통해 보는 시간
	18:15	특집다큐 '정착의 새, 새로운 인간'	법륜스님이 출연해 불교에서 제시하는 생애적 가치관들을 이야기 한다.
	19:25	생방송 '봉축, 영등으로 밝히고'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도시의 시민을 연결해 생방송으로 현장의 모습을 전달한다.
KBS-TV	12:50	연동특집 '복합방송'	7일 실시된 연동특집 '복합 방송' 불교방송과 연속선 영등 등이 866인간연락선과 연속선이다.
	15:00	부처님오신날특별연주회	불교방송과 연속선 영등 등이 866인간연락선과 연속선이다.
	20:00	특집다큐 '달미의 정계하는 정계정'	한국 선불교의 역사를 조명한다.
	23:30	특집 프로그램 '정계정' 재차(재차) 방송	사실증명이 현대인들에게 왜 인가를 받고 있는지를 프로그램으로 보여준다.
	24:00	특집다큐 '다섯모녀의 출가'	다섯모녀의 출가사연을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했다.
KBS2TV	19:00	특집영화 '원로대사'	원로대사의 일대기를 애니메이션으로 그렸다.
	19:30	앙코르다큐 '다람살라를 가다'	달미(달미)가 있는 티베트의 다람 살라를 찾아가는다.
MBC-TV	09:00	'송산이 동쪽으로 간 까닭은'	외국의 선불교를 전파한 송산스님 조명
대우MBC	19:30	특집다큐 '행운의 내부 의사대사'	의사대사가 행운의 사연을 찾아 그의 업적과 발자취 소개
부산MBC	11:00	특집다큐 '행운의 내부 의사대사'	행운의 사연을 찾아 그의 업적과 발자취 소개
	11:00	특집다큐 '행운의 내부 의사대사'	행운의 사연을 찾아 그의 업적과 발자취 소개
SBS-TV	09:00	특집다큐 '해초의 달리아리아'	삼로도의 길을 따라가며 영오전국국전을 찾아서 해초스님의 발자취를 소개 한다.
EBS-TV	22:00	'인도로 간 한국불교'	인도 수자타 아카데미의 생활모습 소개
이데일	16:00	특집다큐 '역사속의 오쇼는 연꽃'	한국에서 건너가 30여년동안 역사속에서 포교하고 있는 심우스님의 활동을 조명
	17:00	특집다큐 '연꽃대담극'	삼로도를 따라가며 구법의 '영오전국국전을 찾아서' 걸출했던 해초스님의 발자취를 조명
이데일TV	12:20	'복도의 땅'	부처님의 8대왕자를 소개한 기원다큐

'사불회탕' 국내 첫선

국립박물관, 소더비경매 유물 전시

97년 미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71만7500달러(당시 6억3천만원)에 낙찰된 '사불회탕' 구매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게 이 경매의 관행이어서, 국내 미술사학자들을 애매하게 한 이유들이 국내에서 첫선을 보였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일부터 6월 4일까지 지난 12년간 소더비·크리스티 경매 등 국내외 로부터 구입해 온 국보·보물급 유물 2천892점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회는, 지금까지 실물로는 공개되지 않았던 신라일체경원품차륜(국보 제245호), 관세음보살 대다라니경(보물 제691호), 예념미타도량참법(보물 제949호) 등이 선보인



오종욱 기자

리홍재씨 불정사서 불교취호 퍼포먼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산사에서 이색적인 사예 퍼포먼스가 마련된다. 서예가인 산(栗山) 리홍재씨(44 李洪宰, 법명 如然)씨가 11일 오후1시 안동 불정사 만세루에서 길이 1~20m의 한지에 부처 불(佛)자와 파사현정(破邪顯正)등을 써 내려가는 불교 취호 퍼포먼스를 펼친다.

리씨는 이날 먹을 잔뜩 머금은 1m 크기의 큰붓을 양손으로 잡은 채 불교 취호를 써 내려갈 예정이다. 취호 퍼포먼스는 기력(氣力)과 필력(筆力)이 어떤 경지에 도달하지 않고는 글씨의 중심조차 잡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작업이다.



대우=이윤호 기자

봉은사 불교캐릭터 개발



▷이기부처



▷동자승



▷달미



▷십이지신중 용

봉은사가 새 천년 불교교의 일환으로 새로운 불교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불교캐릭터를 개발했다.

봉은사가 지난해 12월부터 전문 캐릭터 개발업체 (주)EICH와 공동으로 개발한 이번 캐릭터는 모두 4종. 동자승의 순수한 이미지를 입체적으로 표현한 동자승, 부처님의 엄숙한 이미지를 어린 부처의 모습을 통해 친숙한 이미지로 형상화한 아기부처, 달미스님의 모습을 스케치한 달미, 십이지신을 현대적이고 귀여운 느낌으로 표현한 십이지신 등이다.

현재 이들 캐릭터를 응용한 머그컵, 티셔츠, 엽서, 인형, 스티커 등 10종의 캐릭터 상품도 제작해 판매할 예정이다.

봉은사 박근직 기획과장은 "현재 금강역사, 사천왕상 등의 캐릭터를 개발 중이며, 실생활용품용을 위주로한 다양한 캐릭터 상품 개발로 일반에게도 다가갈 것"이라면서 "불교교의를 극대화하고, 상품으로서의 가치도 살려내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봉은사는 이번 봉은 캐릭터를 부처님 오신날 행사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특히 4일~11일까지 경내에서 제1회 봉은 불교캐릭터 축제를 연다. 이 축제에는 20여 불교용품 관련업체도 참가해 각종 캐릭터불교상품을 선보이며, 어린이 불자를 위한 퀴즈대회, 중국 용 퍼포먼스 등의 이벤트도 펼쳐진다.(02-517-0149)

이은자 기자

단 한 번 듣는 것만으로도 해탈에 이르는 가르침 !!!

티벳 '사자(死者)의 서(書)' 오디오 북 특별 할인 판매

행사기간: 2000년 5월 31일까지 (주문 판매에 한합니다)

이 오디오 북은, 티벳 '사자의 서'를 쉽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배경 음악과 함께, 이해하기 쉬운 현대적인 언어로 녹음되어 있다.

단순히 듣는, 이 명상법은 죽음의 과정과 죽음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갖가지 현상들을 미리 들려 줌으로써, 죽음의 상태에서 깨달음에 이르도록 도와 주며, 올바른 자궁을 선택하여 환생하는 방법까지 알려 주고 있다.

'오쇼 삶과 죽음의 과정을 위한 학교'의 비트만(Veetman)에 의해 만들어졌고, 전 세계 6개 국어로 번역 출간되어 있다.

배경 음악: 친마야(Chinmaya) / 번역: 최항식 / 목소리: 장두석



바르도

- ▶ CD(3장): 정가 50,000원 → 30,000원
- ▶ TAPE(1시간 30분 테이프 2개): 정가 28,000원 → 18,000원

바르도에 대한 오쇼의 강의 테이프와 함께 들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 테이프에서 오쇼는 바르도의 중요성, 바르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죽음의 순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바르도 상태에서 깨어 있을 수 있다면 죽음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죽음은 꿈의 끝이다." -오쇼-



90분, 5,000원

도서출판 황금꽃 : 전화 02)711-4227,8 / 팩스 02)711-4229